경희

2000년대 여학생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 '여학생 운동'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는가?

1. '여학생 운동'은 전체 학생 운동의 내부에서 여학생들이 주체가 되었다거나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운동 - 여학생들이 주체가 되었다는 것

2. '대학 내 여성운동'은 비교적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활동, 즉 '성'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는 운동

< 형성기 : 여학생 운동 >

1) 여학생 조직 생성의 배경

연세대 - 대한민국 최초로 남녀공학 표방, 여학생 수는 증가했으나 대학생 + 여성
여성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① 남성화되는 모습
② 여자다운 학생이 되는 것

1970년대 후반 여학생들의 '독립운동'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970,80년대 패밀리(지하서클)에서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1980년대 중반 써클 -> 학생회로의 전환

2) 조직의 형성

여학생 모임 건설 (1970년대 후반 ~ 1980년대 초반)
- 운동 사회에서 배제되면서 이후 학회에서 여학생들을 받아들이지 여학생 모임의 존재이유에 대한 문제제기
학생 운동 세력의 운동 주체들이 나가고 공백이 생기자 많은 여학생 모임이 해산
이 중에 사라지지 않은 여학생 모임 -> 여학생회 건설의 기반

학도 호국단은 어용성의 그 이름답게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미명아래 여학생 제대를 아래에 두고 있었다. (1983년 성균관 대학교)

1984년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에 고대, 서울대 - 총여학생회 건설
1985년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등 - 총여학생회 건설
학생들은 공인된 체계를 지닌 대표조직을 건설하게 된다.
여기에서 여학생들의 독자적인 운동체를 가지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존재 타당성에 대한 논

란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건설과 해소를 반복하여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1989년 여학생 대표자 협의회를 건설한다.
- 여학생 운동 단위 모임. 대학 여성 운동의 영역 확보

1990년대 초반 - 전여대협 건설
많은 학교에서 총여학생회가 건설되었는데 이 건설 과정은 여성 문제의 독자성을 인식한 조직 구성이 아니라 완성된 학생회 체계가 갖추어야 할 일종의 '구색'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총여학생회 주체는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여학생이 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3) 운동의 관점과 주요 활동

1980년대 중, 후반기 - 빈민연대 활동의 차원에서 진행된 보육 활동
1990년대 초반 -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 고용에서 남녀 차별 금지를 요구하는 활동과 부천서 성고문 항의 활동, 김보은, 김진관 석방운동, 여성농민 분반 활동(부녀반에서 명칭 변경)
1980년대와 다르게 '성'을 매개로 한 사안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대중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상위운동에 반드시 복무해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 밖 여성운동을 보는 시각은 지식인 여성이나 중산층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부르주아 여성 운동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성' 문제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

이 시기 여학생 운동은 민족문제, 계급 문제로 여성문제를 바라보려는 시각이 강했는데 이는 여학생운동의 인자들이 대부분 학생 운동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과 여학생 조직의 시초가 학생 운동 내에서 여학생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독자적 흐름이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전략적으로 제휴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 전환기 : 여성주의 >

1) 전환의 배경

대학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과 성정치 담론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성정치는 상당히 새로운 대학 여성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다'로 '성'의 문제가 다른 '정치적' 문제들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성문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접

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1990년대 초반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전환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학생운동의 다양화와 함께 운동의 여러 갈래 길이 열리고 부르주아 여성운동이라 연계하지 않았던 여성계와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

- '박문세원'의 논문 중 '대학 여성 운동의 발자취'에서 일부분 발췌 -

▶ '여성주의 여학생 운동'과 '전여대협 여학생 운동' 과연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흔히 여성주의와 전여대협의 중간자적 역할을 서여대협 운동에서 담당하는 주체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확히 어느 누구도 전여대협 운동이 가지는 문제점과 여성주의 운동의 그른 점과 장점을 파악하거나 그 운동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성주의 운동과 전여대협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야기해 보자.

성정치 - 여성주의가 말하는 여성운동이란 무엇인가?

여성주의에서는 주로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는 외국의 여성운동에서 급진주의 페미니즘[1]에서 처음 부르짖었던 것으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곧 개인적인 여성을 둘러싼 일상사가 바로 정치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고 이를 통해 여성은 통제되고 억압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드러나지 않고 사적인 영역에 숨겨져 있었던 여성의 삶이 공적인 영역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사적인 여성의 영역이 바로 정치적인 것이며 이를 정확히 바라보고 그 안에 여성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이나 임신, 양육, 그 밖의 생리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결코 사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드러내어 밝히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1) 집단으로서 남성이 집단으로서 여성을 지배하여, 남성이 여성 예속의 주된 수혜자라고 본다. 여성의 성성과 신체에 대한 전유가 남성지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성성은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의 주된 위치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이성에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것이고 성별 관계의 많은 다른 측면을 조직한다고 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여성을 통제하려는 체제의 일부라고 본다. (- 가부장제 이론 '실비아 월비)

또한 여성억압의 주체인 남성위주의 현 사회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동주의를 실천하는 여성운동과 그 이론. 가부장제에 대한 기초적 법적, 정치적 구조와 사회, 문화적 제도가 여성 억압의 한 원인일 뿐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이 여성의 정체감과 억압의 주된 원인이므로, 여성 해방은 출산, 양육 등의 여성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여성운동을 이른다. 1960년대 후반 등장하였으며 5,60년대 전개된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주도한 시민권 운동가 및 급진적 좌파운동을 주도한 뉴레프트 활동가들이 억압당하는 계급으로서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던 이유에서 전개되었다. 급진적 페미니즘의 실천자로는 앨리스 에콜스, 앤 코트, 엘렌 윌리스,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등이 있으며, 70년대 이후 문화적 페미니즘으로 계급으로서 여성에 대한 초점을 맞춘 급진적 페미니즘의 작업을 한층 더 정제하여 여성 문화와 여성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영 페미니스트라 하여 90년대 중반부터 이대 여성위원회, 대학사회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려내기 위한 '들꽃모임', 서울대 관악 여성 모임 연대,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을 가리켜 '여성주의'라고 칭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여성운동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기존의 수직적 위계에 대한 반발과 대표체로서의 여학생 조직에 대한 문제제기,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로 몇몇 학교에서는 총여학생회를 해소하고 위와 같은 형태(- 위원회 또는 총학생회 내 여성국을 만들거나 성정치 위원회, 여성 자치 모임을 건설하거나 여성 학회로의 전환)의 모임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전여대협에서 이야기하는 자주적 여학생 운동은 무엇인가?

'우리가 밝혀내려고 하는 자주적 여성운동이론은 한반도 이남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처지와 조건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여성을 규정하는 모순들을 사회구조의 연관 속에서 밝혀내고 그 근본원인을 바로 인식하며 남녀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해방의 세상을 만드는 과정과 경로는 보여주는 이론을 이야기한다.'
전여대협에서 이야기하는 자주적 여성운동이론에서는 여성억압의 원인을 이남 사회의 식민지성과 자본주의 가부장제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고 여성이 진정한 삶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여성운동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여대협의 운동에 대해서 민족해방 계열의 부문 운동으로 정리되었고 한총련 아래에서 모든 활동이 결정되어 전여대협의 독자적인 활동은 활발하지 않다고 문제제기한다. 조직 체계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도 별로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후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현재이긴 하지만 전학협에서 반성폭력을 화두로 들고 나온 것과는 상반되게 아직도 한총련 내부에서는 전여대협의 지위 또한 그만큼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 '여학생 운동의 단결은 가능한가?' 와 ' 전여대협 혁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은 ....

분산적이고 사안별로 모이는 여성 모임의 형태들에 대한 문제제기

- 모임들은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성폭력, 성매매, 일본군 성노예, 가정폭력, 호주제, 여성노동, 여성 농민들의 모임은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매우 여러 가지 부분의 여성 운동모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운동모임이 한 가지로 결집하여 한데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모습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시기별, 사안별로 투쟁하고 집단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인 관심에 참여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일상적인 여성문제는 여기저기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운동들을 하나로 모아낼 사안들을 집어내기도 힘들다. 그러나 여성운동 내에서도 모

든 여성 운동 세력들의 흐름들을 결집해내고 보다 큰 사안 아래 단결할 수 있는 여성 단체 연합이라든지 얼마 전에 발족한 여성해방연대 등의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문제의 사안은 시시 때때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하나로 모아낼 것인가의 문제는 더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워낙 여러 여성운동의 흐름들이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과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성주의와 전여대협 운동의 결합 가능성의 여부는 있는가?

- 여러 해 동안의 전여대협 운동과는 다르게 많은 여성 운동 진영의 특색을 전여대협 안으로 받아들기도 하였고 아직까지 전여대협 전체 여학 운동 세력의 전체적인 결집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 그러나 보다 넓어진 여성 사안으로 투쟁을 하는 여성 운동으로의 결합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래 여성 운동이 그렇듯 여러 가지 여성 문제의 기원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과 이를 수용하는 입장이 또한 우리 나라 안에 여러 가지인 것으로 볼 때 어떻게 결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사리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